

KIA 선발, '마의 7회'를 넘겨라

87경기에 선발된 평균자책점 5.23 ... 10개 구단 최하위
7회 이상 투구 브룩스 3차례·임기영 2차례 뿐 ... 불펜 큰 부담



'마의 7회'를 넘어야 KIA 타이거즈가 산다.

KIA는 올 시즌 마운드 고 민 속에 최하위 싸움을 하고 있다. 장현식·정해영에게 부담이 집중된 불펜도 불펜이지만 시작부터 어렵다.

지난해에도 4·5선발 자리를 놓고 '선발 오디션'이 전개됐고 2021시즌에도 선발 고민은 여전한다.

좌완 양현종이 떠난 자리에서 '특급 루키' 이의리가 놀라운 시즌을 보내면서 눈길을 끌고 있지만 이제 막 프로에 뛰어들어 어린 선수다.

올 시즌에도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브룩스는 전반기 부상으로 산음했고,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는 불미스러운 일로 영영 팀을 떠났다.

올 시즌 가장 눈길을 끈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인 멧덴도 부상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지난 시즌 경험을 더해 선발 한 자리를 안정적으로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이민우도 7경기를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임기영과 이의리가 어렵게 마운드를 끌고 가는 모양새가 됐고, KIA 선발진 성적은 좋지 못하다.

29일 경기 전까지 87경기에서 기록된 KIA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5.23으로 10개 구단 최하위다.

당연히 선발진의 승수도 부족하다. KIA의 현재

최다승은 '마무리' 정해영이 기록한 5승이다. 선발진 중 최다승 주인공은 4승의 이의리와 멧덴, 브룩스가 3승을 올렸다. 가장 꾸준하게 마운드를 지킨 임기영은 승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2승에 그치는 등 올 시즌 KIA의 선발이 기록한 승수는 36승 중 17승에 불과하다.

평균자책점, 승수도 부족하지만 가장 아쉬운 건 이닝이다.

87경기에서 선발진이 책임진 이닝은 378.1이닝에 불과하다.

당연히 KIA의 퀄리티스타트(6이닝 3자책점 이하)는 26차례로 한화(25)에 이어 가장 적다.

임기영과 브룩스가 각각 8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를 만들었고, 멧덴(5), 이의리(4) 순이다. 이들 외 김유신(11경기), 이민우(7경기), 차명진(3경기), 윤준현(2경기), 남재현(1경기), 최용준(1경기)이 선발로 나선 25경기에서는 이민우가 단 한번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선발진이 7회를 넘긴 경기도 드물다.

브룩스가 시즌 개막전이었던 4월 4일 두산전 7.1이닝(2실점)에 이어 4월 25일 삼성전(2실점 1자책점), 5월 26일 키움전(2실점)에서 각각 7이닝을 던지며 선발 역할을 해줬지만, 결과는 1승 1패.

이어 임기영이 5월 22일 삼성전(2실점), 7월 7일 한화전(무실점)에서 두 차례 7이닝을 장식하면서 1승을 올렸다.

브룩스와 임기영을 제외하고는 7이닝을 넘긴 선



이의리

발이 없다. 멧덴과 이의리가 각각 한 차례 6.2이닝까지 소화한 적은 있지만, 마지막 고비는 넘지 못했다.

선발진의 부진 때문에 장현식과 정해영에게 역할이 집중된 KIA 불펜은 5회부터 바쁘게 움직이면서 '마의 7회'를 넘고 있다.



임기영

상황이 이렇다 보니 KIA는 '순위 싸움'과는 거리가 있지만 새 외국인 선수 보 다카하시를 영입했다. 실제 다카하시가 마운드에 투입되기까지 3주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선발진은 '이닝'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를 풀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78일 만의 빅리그 복귀전 양현종 2이닝 무실점 호투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78일 만의 빅리그 복귀전을 무실점으로 장식했다.

양현종은 29일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2·5로 뒤진 7회 구원 등판해 2이닝 동안 3안타와 볼넷 1개를 내줬지만, 실점 없이 등판을 마쳤다. 삼진은 1개를 잡았다. 투구 수는 29개,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8km였다.

양현종이 메이저리그 경기에 출전한 건, 6월 1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 이후 78일 만이다.

빅리그에서 8경기 3패 평균자책점 5.59를 기록하고 6월 17일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양현종은 팀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발생하자, 지난 25일 빅리그 재입성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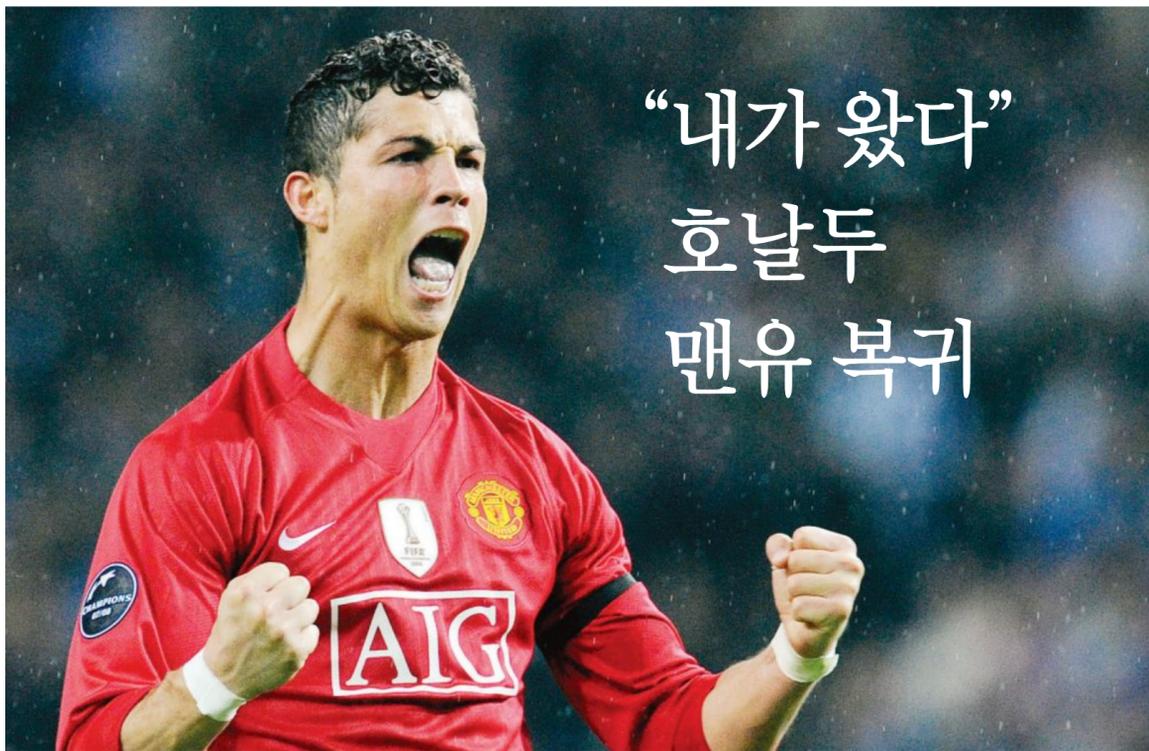
선발 풀비 앨러드에 이어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양현종은 7회 첫 위기를 넘겼다.

첫 타자 마이크 브랜틀리를 중견수 뜬공 처리한 뒤 윌리엄스 구리엘과 요르단 알바레스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1사 1·2루에 몰렸다.

양현종은 카를로스 코레아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낸 뒤 알렉스 브레그먼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져 2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양현종은 삼점 위기에서 카일 터커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해 이닝을 끝냈다. 8회에도 마운드를 지킨 양현종은 제이크 메에르스에게 우전 안타를 맞고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마틴 말도나도를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이어 호세 알투베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1사 1·2루에서 브랜틀리를 2루수 앞 병살타로 요리해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양현종의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은 5.59에서 5.23으로 좋아졌다.

/연합뉴스



“내가 왔다” 호날두 맨유 복귀

12년 만에 '왕의 귀환' ... 손흥민과의 대결 관심

'손날두' 손흥민(29·토트넘)이 드디어 자신의 우상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와의 '꿈의 대결'을 앞섰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는 28일 호날두와 계약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호날두가 12년 만에 올드 트래퍼드(맨유 홈구장)로 복귀하는 것은 한국 축구가 낳은 최고의 선수 손흥민에게도 의미가 크다.

손흥민은 어릴 적 박지성이 뛰는 맨유의 경기를 보며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당시 맨유에서 뛰던 호날두는 손흥민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손흥민은 롤 모델을 꼽아달라는 말에 늘 호날두를 지목했다.

2015년 유럽축구연맹(UEFA)이 진행한 팬과 'Q&A'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호날두는 헤딩이나 프리킥 등 어떤 방법으로도 골을 넣을 수 있다. 그가 경기에서 나서면 항상 위협적"이라면서 "그가 축구를 하는 방식을 좋아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2019년 영국 신문 가디언과 인터뷰에서는 "프로 선수가 되는 일은 일은 재능 이상의 것이다. 내 우상 호날두는 그가 가진 재능보다 더 노력한다"고 말했다.

두 선수는 스피드를 앞세운 직선적인 드리블, 결정력 높은 슈팅 등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 손흥

민에게 '손날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호날두처럼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한 손흥민은 지속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특급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호날두의 맨유 입단이 확정된다면 손흥민은 호날두를 '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토트넘과 맨유의 2021-2022시즌 첫 대결은 10월 3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정규리그 경기로 치러진다. 정규리그 두 번째 맞대결은 내년 3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만약 토트넘과 맨유가 잉글랜드축구협회 FA컵이나 리그컵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면, 토너먼트 외 나무다리 승부를 펼칠 수도 있다.

손흥민과 호날두가 지금까지 그라운드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있던 2019년에는 프리시즌 친선대회인 인터내셔널 챔피언스 컵(ICC)에서 만났다.

이때는 두 선수 모두 선발 출전해 손흥민이 교체되기까지 45분간 골 대결을 펼쳤다. 손흥민은 득점하지는 못했지만, 골대를 한 번 맞추는 등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호날두는 손흥민이 빠진 후반전 득점했다.

손흥민과 호날두는 유니폼을 교환하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내가 간다” 이강인 마요르카행 임박

발렌시아와 계약 파기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20·발렌시아)이 스페인 마요르카로 이적해 '동갑내기' 일본 공격수 구보 다케후사와 함께 활약할 공간이 커졌다.

스페인 '엘데스마르케'는 29일 "이강인의 마요르카 이적이 임박했다. 이강인은 남은 계약을 파기하고 이적료 없이 마요르카로 떠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발렌시아는 지난 26일 브라질 출신 공격수 마르쿠스 안드레(25)를 영입하면서 이강인과의 결별을 예고했다.

엘데스마르케에 따르면 발렌시아는 2022년까지 남은 이강인과 계약을 파기하고 자유계약(FA)으로 풀어줬다.

2011년 합류한 발렌시아와 10년의 인연을 마무리하는 이강인의 차기 행선지는 가장 최근 관심을 표시한 마요르카로 향하는 모양새다.

1916년 창단한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2부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시즌 1부리그로 승격한 팀이다.

2012-2013시즌 2부로 강등됐던 마요르카는 2019-2020시즌 1부로 올라왔지만 한 시즌 만에 강등됐다가 이번 시즌 다시 승격의 기쁨을 맛봤다.

/연합뉴스

K리그1 경기 일정 변경

정규라운드 최종전 10월 24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광주FC의 강원 원정 경기가 10월 17일에 진행된다. K리그1 정규라운드 최종전은 10월 24일에 열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강원FC 선수단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연기된 'K리그1 2021' 경기들의 개최 일자를 확정했다.

A매치 기간과 AFC챔피언스리그 8강 토너먼트 기간을 활용해 경기가 재편성됐으며, 광주는 지난 27일 치르지 못한 강원 원정경기를 10월 17일 오후 2시에 갖는다. 정규라운드 최종전은 10월 3일이 아닌 24일에 치러진다.

광주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파이널라운드에 앞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이에 따라 10월 3일 동시에 킥오프 예정이었던 33라운드 경기는 10월 2·3일 이틀간 분산해서 개최한다.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예정된 광주와 포항스틸러스의 33라운드 경기 시간에도 변화가 있다. 날씨는 변동 없이 10월 3일 그대로 진행되지만, 경기 시간이 오후 3시에서 4시 30분으로 변경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